



元氣를 가진 者들이었다. 그들은 일즉이 人間의 罪業이나 人生의 闇黑은 도모지 意識치 못한 樂天的인 그리고 어디까지던지 自然的 生活을 享樂하며 尊重히 녀인 民族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民族性이었다. 그러나 如斯히 樂天的이고 現實的인 希臘民族의게는 印度나 希伯來民族과 갖춘 顯著한 宗教가 업섯는나하면 그는 또한 그것치 안은 것이다. 이 希臘民族의게도 自己의 特有한 宗教가 이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宗教는 希伯來의 그리스도 敎나 印度의 佛敎와 如히 厭世的이고 또한 悲觀的이고, 遁世的의 宗教는 아니었다. 이와 全히 反對로 그들의 民族性을 샤라 가장 自然的, 樂天的, 그리고 現實的의 宗教였다.

古代希臘에서 宗教의 對象으로 信奉하던 神은 今日 우리가 敬畏하는 神과 如히 人間과 全히 相異한 者로써 概念한 神이 아니었다. 神과 人間 間에는 絶對의 區別이 업시 神은 곳 尊敬할만한 그리고 超越한 人間으로써 生覺한 것이었다. 如斯히 엇던 일에던지 玄室을 尊重하고 自然을 조와한 希臘人은 神이나 宗教까지도 現實的이고, 自然的인 것이었다.

勿論 希臘思想 가운데에도 厭世的, 悲觀的 主義가 都無한 것은 아니었다. 소크라테스(Socrates)가 흔이는 節制主義의 元祖며 또한 그 學派 中에는 著名한 禁慾主義者가 續出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現象은 그 希臘 全盛時代에 發生된 것이 아니었다. 的確히 말하면 全盛期 以後 即 希臘文化의 末期에 惹起한 現象이었다. 普通으로 우리가 希臘의 全盛時代라고 니르는 紀元前約 第五世紀에 有名한 政治家 페리클리스(Pericles)時代까지의 傾向으로 말하면 希臘生活은 어디까지던지 荒々한 쏘는 華麗한 樂天的 生活이엿섯다.

節制主義는 單只 過度한 恥溺으로 警戒하는 敎訓이요, 決코 現實 生活 否定의 意味는 업섯던 것이다. 希臘人이 如何히 自然生活을 尊重하였는지는 彼等의 人生觀이 얼마나 現實的이며 쏘는 樂天的임에 依하여 우리가 明白히 認知할 수 잇는 것이다. 더들의 有名한 올림픽(Olympie)神殿은 文明史的으로 觀察하여 確實히 希臘文化의 結晶이었다.

더들은 이렇케 信仰하였다. 神은 直接 現世를 支配하여 人間界에 表現되는 善은 漸々繁榮케 하며 惡은 衰退케 한다는 正義가 그들 希臘人의 確信하는 바였다. 即 現世는 어디까지던지 神들의 支配를 맞는 아름답고 貴한 正義의 王國이라고 生覺하였다. 未來의 世界라던지 罪惡이라던지는 希臘人이 別로 生覺지 못하던 思想이었다. 現實의 華美한 生活을 즐김이 어디까지던지 그들의 目的이었다. 故로 이 點으로 보면 後에 플라톤(Platon)의 厭世觀이나 소크라테스(Socrates)學徒 中의 禁慾主義와 如한 것은 希臘固有의 自然生活主義의 反動運動이라고 解釋할 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約 第四世紀 以後로 希臘의 國運은 漸次衰退하여져서 一般 希臘民族의 生活은 甚히 廢頹의 傾向을 呈하였다. 그리하여 傳來의 樂天主義는 本來 그가 強烈하던 것만치 또한 非運의 時代 傾向과 衝突하였다. 時代 傾向이 漸々暗黑的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또한 反對로 그들의 思想은 悲觀厭世主義로 옮기게 되었다.

希臘思想이 自然的 現實的인 束縛을 맞지 안은 것이다. 古代 文明國 例하면 印度나 埃及에는 嚴格한 階級制度가 有하여 그들의 生活이나 思想이 全然히 束縛과 制限을 벗어슴에 反하여 이 希臘은 最初부터 制度가 엮는 自主的이요, 또한 獨立的인 것이었다. 우리가 已知하는 바와 如히 希臘이라 하는 小國에 多數한 獨立的 自由部落이 發達된 것은 明白히 此의 根本 傾向을 證明하는 것이다. 自由가 있는 곳에는 進歩가 有하며 創造가 有하다. 다시 맞구어 말하면 創造와 進歩는 오직 한갓 自由있는 곳에 쏠 있는 것이다. 歷史上에서 新制度나 新思想을 產出한 民族은 그 數로 말하여도 적지안으나 그러나 이 希臘民族만치 新見과 創意가 富한 民族은 참으로 그 例를 求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希臘文明史는 眞實로 新生活, 新制度, 新思想創造의 歷史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極端으로 말하면 近代生活에서 表現되는 모든 制度文物, 思想感情은 한아도 남김 업시 모다 이 希臘文明史 中에서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快活하고 自由로운 不霸獨立의 傾向은 어디까지던지 이 希臘人의 特徵이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希臘民族은 가장 卓越한 藝術的 才幹을 가진 特有한 民族이었다. 燦爛한 그들의 歷史는 藝術的 才幹發展의 歷史라고 觀察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호-멸(Homer)의 일리엘(Iliad)나 오데서(Odyssey)는 單只 호-멸이라는 一個 詩人의 作畧이 아니었다. 實狀은 호멸의 時代에 至하기까지의 全希臘民族의 藝術的 發展의 結果에 不外한 것이다. 希臘人은 어디까지던지 藝術的 民族이라는 것은 곳 호멸(Homer), 에스킬너쓰(Aeschylus), 쏘포클쓰(Sophocles) 等 大詩人의 輩出을 始하여 建築, 彫刻, 繪畫 等, 모든 方面에 關하여 藝術的으로 世界的 典型을 後世에 남겨둔 것에 依하여 明白한 것이다. 그리고 古代希臘民族의 모든 日常生活이 또한 가장 顯著한 藝術的 生活 이었던 것도 記憶치 안어서는 안될 것이다.

希臘文化의 內容은 極히 複雜하였다. 그럴지라도 希臘은 有史 以來 第一位라고 稱함을 맞는 文化國이었다. 그래서 이렇케 複雜한 文化의 根本 內容을 形成한 것은 實로 希臘人의 藝術的 天才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彫刻, 建築, 繪畫, 文學, 詩歌 等에 나타난 希臘思想의 具體的 內容을 細密하게 觀察할 機會는 엇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니르러 우리가 그

希臘人の思想感情을 알 수 있는 理由는 곳 이들의 이 藝術品을 배운 까닭 이었다. 오늘날까지 남겨있는 希臘藝術은 가장 具體的으로 希臘人の 思想과 感情을 잘 傳하여 주는 것이다. 먼저 希臘文化의 淵源으로 볼 수 있는 神話(Mythology)는 直接으로 最古한 希臘人の 藝術的 才幹의 發現인 것이다. 모든 自然界의 一切 事物은 이들의게 對하여서는 전혀 아름다운 生命을 가진 靈妙한 活物이며 活體였었다. 모든 山川 草木은 모다 - 美妙한 働力을 가진 靈體였었다. 이들의 神들은 모다 이러한 靈妙의 活物 또는 活體에 不外하였 다. 宇宙의 萬象은 徹頭徹尾하게 이렇게 善美한 神들의 支配된다고 觀察하여 슴이 곳 希臘人の 熱烈한 樂天的 兼宗教的 傾向이였었다. 宇宙를 混沌한 그리고 無秩序, 無規律한 形體로 보지만 아들까지던지 秩序整然한 아름다운 現實體로 본 곳에 古代 希臘人の 確信이 有하였다. 이들의 藝術的 天才는 어 디까지던지 無秩序한 것에 一定한 秩序를 與하여스며 混沌한 것에 整然한 規律을 주는 것이었다. 故로 이 點으로 보면 古代 希臘哲學이 或은 탈네스(Thales)와 如히 水를 或은 아낙시메네스(Anaximenes)와 如히 空氣를 或은 헤라클리토스(Herakleitos)와 如히 火를 宇宙의 構成 元素라고 본 것이나 또는 此等 構成 元素가 다 - 그 靈妙한 「理」에 依하여 支配된다고 본 것은 그 根底에서 다 - 希臘의 藝術的 直觀의 發現이라고 解釋할 수 있는 것이다. 其中에 有名한 古代哲學의 一派 피타고라스(Pythagoras)學派가 萬物을 純然한 數 또는 數的 關係로써 成하였다고 觀察하여 幾何學的 또는 音樂的 規律이 整然한 體가 곳 萬有라고 解釋한 것은 希臘人の 思想과 感情을 가장 顯著한 形式으로 發表하는 것이었다. 勿論 古代 希臘人이라도 人生의 不幸이나 災害에 對하여서 전혀 盲目的인 것은 아니었다. 모든 無秩序한 罪惡에 對하여는 오히려 銳敏한 感能을 가지고 이었다. 그러나 此等 無秩序한 모든 惡, 모든 罪도 終局은 一層 더 큰 世界의 正義의게 征服되어 全體上으로는 가장 嚴肅한 因果應報가 支配된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根本的 信仰이었다.

에스킬너스나, 소포클스 등의 劇詩는 가장 具體的으로 이 種類의 根本的 信仰을 노래하는 것이었다. 此等 詩人들의 남겨둔 宿命觀- 即 人間의 行爲는 가장 嚴格한 法則에 支配된다고 하는 宿命觀-은 畢竟은 嚴格한 因果應報의 思想에 不外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希臘藝術의 特徵은 近代의 藝術이 顯著하게 無涯限混沌- 즉 甚하게 말하면 醜惡함에 對하여 가장 秩序整然한 그리고 壯嚴奧妙한 것이였었다. 後世에 所謂 古典藝術의 特徵은 이 希臘藝術의 精神에 不外한 것이었다.

以上에 말한 마와 如히 希臘人은 特殊한 象徴的 傾向을 가진 藝術的 民族임과 同時에 이들은 또한 顯著한 知識的 또는 理論的 또는 科學的 民族인

것이였다. 따라서 이希臘文明이 또한 顯著히 主智的인 것은 疑心치 못할 明白한 事實인 것이다. 즉 古來로 希臘民族만치 知識又是 智慧를 尊重한 民族은 다른데서 그 例를 求하기 어려운 것이다. 希臘의 精神又是 思想이 如何히 主智的인 것은 一々히 例證할 必要는 업스나 그러나 希臘文明은 一面으로 보면 藝術的 發展인 同時에 他面으로 보면 知識의 成長인 것은 알아야 할 것이다. 紀元前 第六世紀頃으로부터 탈네쓰(Thales)를 비롯하여 데모클리토쓰(Demokleites)에 至하기까지 希臘은 頻々히 自然科學上又是 哲學上天才를 輩出하여 歐洲百代の 科學的 又是 哲學的 傾向은 當時에 벌써 그 基礎가 確立된 것이였다. 이것을 보아 希臘이 近代 文明에 얼마나 한 基礎과 恭獻을 與하였는지는 우리가 明白히 推察할 수 있는 事實이다.

그리고 最後로 우리가 希臘思想研究에 對하여 注意할만한 것은 이들의 道德的 傾向 즉 소크라테쓰나 플라톤 等に 依하여 基礎를 成한 理想的 傾向이다. 簡單히 希臘人은 藝術的 사람 又是 現實生活을 즐기는 民族이라고 하면 그 反面으로 이들은 輕快하고 쏘는 峻嚴한 道德的 傾向을 缺한 民族처럼 想像되는 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全혀 이와 正反對인 것이다. 이들은 一面으로는 藝術 及 學術的 民族임과 同時에 他面으로는 가장 嚴格한 道德的 秩序의 支配를 받은 民族이였으며 實際적으로 政治 及 道德의 秩序를 가장 強烈하게 尊重한 稀有의 民族인 것이였다. 以上에 말한 嚴格한 因果應報의 思想과 如한 것은 直接으로 希臘道德의 根本인 것이였다.

一九二五, 九, 九

延禧叢中에서 (碧波)